

共產圈에서의 삶의 질의 研究

신 도 철

(사회과학연구소 해외연구원)

次>

- I. 序 論
II. 研究方法의 特徵
III. 概念上의 特徵

- IV. 主要研究結果
V. 結 論

I. 序 論

1960年代末부터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美國을 위시한 西歐의 產業化된 資本主義國家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70年代初에는 共產主義사회에까지 파급되었다.⁽¹⁾ 블란서에서는 “Qualité de Vie,” 독일에서는 “Qualität des Lebens,” 소련에서는 “Katchestovo Zhizni,”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az élet minősége,”라고 불리워지는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用語는 國家發展政策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 새로운 概念的인 道具(conceptual tool)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삶의 질이란 用語가 점차로 보편화됨에 따라서 「社會指標運動」이란 이름 아래 삶의 질에 대한 研究活動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國家發展의 尺度로 널리 사용되어 온 國民總生產(Gross National Product)과 一人當 國民所得(GNP per capita income) 같은 經濟指標(economic indicators)는 國民의 非物質的인 生活領域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중요한 변화를 묘사하지 못하므로 西歐의 資本主義國家의 政府機關과 學界는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라고 불리우는 삶의 질의 尺度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社會指標를 이용해서 國家의 發展狀態와 國民이 체험하는 生活經驗에 있어서의 質

(1) Alexander Szalai,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lexander Szalai and Frank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1980), p. 7.

的變化를 좀더 包括的이며 均衡되게 評價(a more comprehensive and balance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nation and the well-being of its citizens)하려는 시도가 美國을 위시한 30개의 非共產陣營 國家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社會指標文獻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²⁾

美國에서는 聯邦政府의 주관 아래 *Social Indicators*라는 방대한 책자가 출판되고 있으며 英國과 카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책자인 *Social Trends*와 *Perspective Canada*가 각각 출판되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의 내용도 比較·分析되고 있다.⁽³⁾ 또한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The Ministry Qualité de La Vie 라고 불리우는, 삶의 질을 專擔하고 있는 政府機關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 社會指標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⁴⁾ 이 외에도 社會指標文獻에는 印度와 브라질 같은 低開發國家에서 시작되고 있는 삶의 질의 연구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共產圈에서 시행되고 있는 삶의 질의 연구운동은 우리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論文의 目的是 共產圈에 속하는 國家에서는 삶의 질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데 있다. 共產陣營에서는 그래도 어떤 성격의 國家가 삶의 질을 연구하고 있는가? 共產主義國家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는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共產圈에서 시행되는 삶의 질의 연구는 美國과 같은 非共產主義國家에서 시행되는 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 본 論文의 주요 의도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구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의 삶의 질을 比較研究하려고 노력하였다. 미쉬간大學의 Inglehart 교수는 유럽 10개국과 美國에서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⁵⁾ 헬싱키大學의 Allardt 교수는 스칸디나비아의 4개국

-
- (2) Robert J. Rossi and Kevin J. Gilmartin, *The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Sources,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New York: Garland STPM Press, 1980), pp. 5-9.
 - (3) Michael Carley,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1), Ch. 6.
 - (4) Lester W. Milbrath, "Policy Relevant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 444(July 1979), p. 33.
 - (5)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을 3가지 慾求의 滿足度라는 측면에서 비교하였다.⁽⁶⁾ 그리고 纽約大學의 Atkinson박사는 카나다인과 미국인들의 生活滿足感을 비교해 보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서구학자들의 삶의 질의 比較研究에는 共產圈에 속하는 나라가 한번도 포함된 일이 없었다. 이 결과로 우리는 共產圈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가 理論면에서 그리고 方法論면에서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본 論文은 삶의 질의 연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空白狀態를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共產圈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比較研究의 첫 시도이므로 이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制限의 임을 지적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西歐의 社會指標學者들이 지금까지 共產圈을 취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共產圈의 삶의 질을 다루는 文獻이 극히 희박하다. 그리하여 筆者는 共產圈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자들이 英語로 쓴 서적과 그들이 國際會議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그러한 論文들은 주로 概念的이고 哲學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共產社會에서의 삶의 질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經驗的 資料를 이용한 소수의 논문은 與論調查에 의해서 측정된 主觀的 指標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生活環境이나 條件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資料上의 부족된 점이 본 論文에 나타나고 있다.

II. 研究方法의 特徵

共產圈에서는 美國에서보다도 몇 년 후인 1970年代 初期부터 삶의 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共產圈에서도 非共產圈의 나라에서처럼 產業化를 통해서 비교적 높은 生活水準을 달성한 소련과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삶의 질의 연구를 專擔하는 研究所가 설립되었다. 소련에서는 聯邦科學院(U.S.S.R. Academy of Sciences)의 社會調查研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 社會豫報科(Department of Social Forecasting)를 새로 설치해서 종래 經濟學者들이 연구하던 국민의 物質的인 生活水準(level of living)외에 非物質的인 生活領域까지 다루기 위하여 哲學的인 社會學(philosophical

(6) Eric Allardt, "About Dimensions of Welfare in a Comparative Study of the Scandinavian Countries," *Research Report*, No. 1, 1973.

sociology)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社會豫報科에는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삶의 표준(standard of life), 삶의 양식(style of life), 그리고 삶의 방법(way of life) 등과 관련시켜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소련에서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헝가리에서도 삶의 質의 研究所(Center for Quality of Life Research)를 헝가리科學院(Hungarian Academy of Sciences)과 民俗文化研究所(The Institute for Popular Culture)의 협조를 받아서 설립하였다. 이보다도 몇 년 후인 1970年代 中期에 폴란드科學院에서는 社會學 및 哲學研究所(Institute of Sociology and Philosophy)로 하여금 價值觀에 中立을 둔 삶의 질의 연구를 시작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불가리아에서는 중앙정부에 속하는 統計研究所(Bulgarian Central Statistical Institute)가 勞動組合問題研究所(The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for Trade Union Problems)의 후원을 받아서 勞動生活領域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연구를 시작하였다.

共產國에서는 이를 4개국——소련,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이 삶의 질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방측 학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UNESCO가 주관한 삶의 질에 관한 國際會議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cience Organizations이 주최한 價值觀에 관한 國際會議에 다른 공산진영국가에서는 대표를 파견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은 아마도 北韓이나 기타 中共과 같은 低開發國에서는 삶의 질이 국민의 근본적인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된 후에 생각할 수 있는 사치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4개국 중에서 삶의 질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나라는 소련과 헝가리라고 말할 수 있다. 소련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哲學的 原則에 기반을 두고 인간 생활의 모든 중요한 영역을 包括的으로 다루려는 데 삶의 질 研究의 獨特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物質的이고 精神的인 것(material and spiritual), 質的이고 量的인 것(qualitative and

(7) L.V. Bestuzhev-Lada, "Social Problems of the Soviet Way of Life," *Soviet Sociology*, Vol. 16 (Fall, 1977), p.5.

(8) Elemér Hankiss, "Quality of Life Models," in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UNESCO Reports and Papers in the Social Sciences, No. 38, 1978, pp.58-88.

quantitative), 그리고 外的이고 內的인 면(objective and subjective)을 社會科學과 人文科學의 여러 가지 學問 分野에 속하는 학자들이 multi-disciplinary 및 interdisciplinary approaches에 입각해서 연구하려는 것이 소련학자들의 方法論의 특징이다.⁽⁹⁾ 이 결과로 소련학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農村指標모델이나 都市指標모델은 西歐 資本主義 指標모델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社會指標를 개발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¹⁰⁾ 소련 聯邦科學院의 社會豫報科에서 개발되고 있는 國家指標모델은 1,600개 이상의 主觀的, 그리고 客觀的指標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哲學的 原則에 토대를 두고 있는 소련의 演繹的 研究(deductive research)와는 대조적으로 空加리학자들은 歸納的 方法(inductive method)에 의존해서 삶의 질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삶의 질의 모델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勞動의 普遍性(universality of work)과 같은 철학적 원리에서 유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生活經驗에서 발견해내려고 한다.⁽¹¹⁾ 空加리의 삶의 질研究所 所長 Hankiss는, 삶의 질이란 개개인들이 추구하는 價值와 삶의 目標를 달성하는 데서 생기는 心理的 現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經驗的인 研究(empirical research)에 집중하고 있다.⁽¹²⁾ 그는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7개의 與論調查를 실시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에 multi-dimensional scaling과 같은 多變的인 統計分析技術(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을 적용해서 차원이 높은 삶의 질의 모델을 서구학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空加리학자들의 삶의 질의 연구는 같은 공산권에 속하는 소련학자들보다는 서구 자본주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공통적인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9) V.N. Sagatovsky, "Experiences in Combin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to Building a System of the Way of Life Indices," in I.V. Bestuzhev-Lada and N.M. Blinov, eds., *The Modern Conceptions of Level of Life, Quality of Life and Way of Life* (Moscow: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78), pp. 5-15.

(10) T.I. Zaslavskaya, I.B. Munchnik and L.A. Khakhulina, "Construction of a System of Indicators for the Comprehensive Forecasting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side," in Bestuzhev-Lada and Blinov, *op. cit.*, p. 56.

(11) N.M. Blinov, "The Socialist Way of Life and Problems of Work," in I.V. Bestuzhev-Lada and N.M. Blinov, *op. cit.*, p. 40.

(12) Elemér Hankiss, "Structural Variable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Szalai and Andrews, *op. cit.*, pp. 43-56.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보다는 經驗的인 資料(empirical data)에 의존하고 있는 형가리의 삶의 질의 연구는 社會變動을 理解하려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이 추구하는 價值觀과 삶의 目標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構造的인 面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정책수립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정보 생산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련의 社會指標개발은 國家發展政策形成과 評價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主目的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가 제시하는 社會發展의 理想과 소련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現實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국민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중 어느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어 이 영역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¹³⁾ 農村指標와 都市指標모델을 통해서 소련은 삶의 질의 地域的 差異를 완화해서 좀더平等한 社會主義國家의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삶의 질의 연구를 長期的인 社會發展豫報에 적용해서 社會主義 發展을 위한 좀더 유효한 資源供給과 配分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질 연구에 政策的 價值를 강조하고 있는 소련의 관례는 美國 백악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National Indicators System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III. 概念上의 特徵

지금까지 우리는 共生圈에서 삶의 질의 연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方法論的인 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共產圈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를 概念的인 면에서 비교·검토하려고 한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삶의 질이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보는가? 여러 가지 構成要素 중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는가? 共產圈에서 강조되고 있는 삶의 질과 非共產主義 民主國家에서 추구되는 삶의 질에는 概念上으로 어떠한 差異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社會指標運動의 원산지인 美國에서 「삶의 질」이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

(13) I.V. Bestuzhev-Lada, "The Methodological Problems of Studying the Living Standard and the Quality and Way of Life," in Bestuzhev-Lada and Blinov, *op. cit.*, pp. 29-30.

(14) The U.S. White House, *The National Indicators System* (Mimeo., 1981).

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美國學界에서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느냐라는 개념적인 문제에 서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學派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學派에서는 삶의 질을 인간의 物質的 및 非物質的 慾求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能力(the capacity to satisfy material and non-material needs)으로 보고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진 資源(valued resources)이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반면에 다른 學派에서는 「질」은 미(美)와 같이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이므로 생활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生活經驗(life experiences)만이 삶의 질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¹⁶⁾ 前者의 견해를 택하는 학자들을 客觀的인 學派라고 명명하고 後者의 견해를 내세우는 학자들을 主觀的인 學派라고 부른다. 客觀的 學派에 속하는 학자들은 국민의 수입정도, 주택상황, 오염수준 등을 나타내는 客觀的 指標(objective indicators)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主觀的 學派에 속하는 학자들은 생활조건이 개개인들의 욕구를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지를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subjective indicators)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西歐 民主主義國家에서는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概念化(conceptualize)시키는 데 서로 일치되지 않는 두개의 독특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들 서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客觀的인 삶의 環境(objective circumstance of life)이나 혹은 主觀的인 삶의 體驗感(perceptions of life experiences)에 의해서만 간단히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客觀的 學派의 주장을 따른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반면에 主觀的인 견해를 따른다면 외변적이며 일시적인 인간의 기분(mood)을 삶의 질이라는 지속적이며 안정된 상태로 오해할 위험성을 피하기 어렵다.

(15) Storrs McCal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September 1975), pp. 229-248.

(16)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and Willard Ro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17) John Hein, "The Quality of Well-Being," *Across the Board*(October 1979), pp. 75-87.

西歐學者들이 삶의 질의 연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발전시킨 概念의 틀(conceptual framework)은 인간생활의 外的 樣狀과 內的 樣狀을 함께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므로 多元的 現象(multi-dimensional phenomenon)을 一元的 現象(uni-dimensional phenomenon)으로 변형시켜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들 美國學者들이 제시하고 있는 概念의 틀은 인간생활영역 중 個人生活領域에서 나타나는 속성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公共生活領域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개인의 慾求滿足과 삶의 질이 같다고 보는 個人主義的 概念(individualist conception)은 20세기 산업사회에서의 복잡한 인간생활을 너무나 단순하게 평가하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¹⁸⁾

社會主義理念을 토대로 하고 있는 共產主義國家에서는 삶의 질을 定義하는 데 있어서 個人보다도 共同社會에 우선권을 두는 超越的인 概念(transcendental conception)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결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資本主義社會에서처럼 個人的 慕求滿足이나 慕求를 滿足시킬 수 있는 能力を 삶의 질의 전부로 보지 않고 단지 한 가지 構成要素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소련학자들은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 얻고 느끼는 삶의 滿足狀態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란 개념 대신 level of life나 standard of living 이란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¹⁹⁾ 西歐 資本主義社會의 학자들이 個人的 慕求滿足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것은 消費主義社會의 享樂主義를 반영하는 점 근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西歐에서 최근에 개발된 “삶의 질”的 指標體系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위기로부터 유래되는 모순, 전체로서의 “삶의 질의 범주”라는 부르조아적 개념에 독특한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가치가 인간생활의 客觀的이며 包括的인 記述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체계에 대하여 主觀的이며 一般的인 접근을 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삶의 질”的 指標는 종종 “생활수준”(living standard), “삶의 양식(life style),” 또 “삶

(18) Elihu M. Gerson, "On 'the Quality of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1 (October 1976), pp. 793-806.

(19) V.N. Sagatovsky, *op. cit.*, p. 6; and I.V. Bestuzhev-Lada, "Way of Life and Related Concepts as Parts of a System of Social Indicators," in Szalai and Andrew, *op. cit.*, pp. 161-163.

의 방식(mode of life)"과도 멋대로 혼동되고 있다.⁽²⁰⁾

이처럼 個人主義에 입각한 서구학자들의 삶의 질의 관념을 비난하는 소련 학자들은 人間이 社會的인 動物로서 그들이 속하는 共同社會에 기여하는 것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消費者로서 일하는 慾求의 滿足感보다는 生產者로서 共同社會에 참여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인생철학관을 삶의 질을 개념화시키는 데 적용하고 있다.⁽²¹⁾ 그러므로 소련학자들은 삶의 질을 사회구성원들이 消費者로서 그들 個人生活領域에서 느끼는 慾求滿足과 生產者로서 자기들 生活樣式의 社會化(socialization of the way of life)라는 두 가지 生活樣狀의 動的인 관계를 포착하려는 多元的인 性格을 지닌 複合的 概念(collective concept)으로 간주하고 있다.⁽²²⁾ 구체적으로 소련科學院의 社會豫報科長인 I.V. Bestuzhev-Lada는 삶의 질의 개념적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勞動時間이 얼마이며 餘暇에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나가만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소중하고 재미있으며, 또 그들이 그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알아내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입는 옷의 품질과 그것이 얼마나 유행에 맞는가를 연구하며, 음식의 질은 물론 식사할 때의 분위기 등을 연구한다. 住居의 상태, 이웃, 그리고 전체로서 본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환경, 사회제도의 기능,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고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가능성, 창조적인 지적 및 예술적 활동——전문적이거나 아마추어이거나간에——에 참여하는 가능성 등, 요컨대 自己保存, 自己表現 및 自己尊重의 慾求,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尊重에 대한 慾求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 삶의 질의 要諦인 것이다.⁽²³⁾

(20) I.V. Bestuzhev-Lada, G.S. Batygin and N.P. Grishayeva, "The Category of 'Quality of Life' in Present-Day Western Sociology," in Bestuzhev-Lada and Blinov, *op. cit.*, p. 150.

(21) Chavdar Kiuranov, "An Integral Indicator of the Quality of Work and Quality of Life," in Szalai and Andrews, *op. cit.*, p. 173.

(22) V.N. Sagatovsky, *op. cit.*, p. 6.

(23) I.V. Bestuzhev-Lada, "Ways of Life and Related Concepts as Parts of a System of Social Indicators," in Szalai and Andrews, *op. cit.*, pp. 162-163.

個人生活보다도 社會生活을 우선적인 生活領域으로 취급하는 社會主義原則 외에도 삶의 條件이나 環境이 意識構造를 결정한다는 辩證法的 唯物論 (dialectical materialism)을 채택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의 학자들은 삶의 질을 概念化시키고 있다.⁽²⁴⁾ 사회생활은 단지 “客觀的인 것과 主觀的인 것의 辩證法의인 統一(dialectical unity of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을 통해서 유지되고 번영한다고 봄으로써 共產主義의 삶의 개념에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客觀的인 資源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主觀的 ability, 그리고 資源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滿足感이라는 心理的인 狀態까지 포함되고 있다.⁽²⁵⁾ 인간생활의 內的인 것과 外的인 것을 동시에 취급하는 접근법은 인간생활의 滿足狀態(the state of satisfaction) 외에 持續狀態(the state of viability)까지 평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생활의 個人的인 영역과 公的인 영역, 그리고 客觀的인 삶의 條件과 主觀的인 삶의 體驗 등을 전부 다루려는 共產主義國家의 학자들의 삶의 질의 관념은 西歐 民主主義社會의 학자들의 관념과 비교할 때 좀더 多元的이고(multi-dimensional) 動的인 (dynamic)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의 학자들은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人間生活의 네 개의 構成要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삶의 질이 달성되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主觀的인 것과 客觀的인 것의 統一狀態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가? 個人生活領域에서의 滿足感과 共同生活을 위한 희생이 並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概念의 問題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共產圈의 삶의 질의 개념에는 상당한 혼동상태가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삶의 질을 複合的 概念으로 고려하는 共產主義社會의 학자들은 이 개념이 分配的인 性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西歐의 학자들은 대체로 개개인의 生活狀態나 혹은 삶의 滿足水準을 표시하는 主觀的, 客觀的 指標의 平均值에 의존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는 부유층과 가난한 중간의 간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共產圈의 학자들은 平等의

(24) *Ibid.*, p. 161.

(25) N.M. Blinov, "The Socialist Way of Life and Problems of Work," in Bestuzhev-Lada and Blinov, *op. cit.*, p. 38.

程度를 나타낼 수 있는 尺度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²⁶⁾ 그렇지만 精神的, 物質的 慾求의 滿足과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資源이 국민들간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統計가 무엇인지에 관해 共產圈의 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IV. 主要研究結果

1970年代初부터 共產圈에서 실시된 삶의 질의 연구는, 대체로 概念的이며 哲學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經驗的인 研究는 量的인 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도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西歐資本主義社會에서는 經驗的 資料 (empirical data)의 분석이 삶의 질 연구의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共產主義社會에서는 經驗的인 研究가 소수를 차지하고 이러한 연구에서 취급된 領域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美國, 英國, 그리고 유럽 資本主義 社會에서 최근에 실시된 舉論調查에서는 직업, 여가, 결혼 및 가족생활 등을 취급하는 個人生活領域에서 동네, 사회, 정부와 같은 共同生活領域까지 광범위하게 人間生活의 重要한 關心事를 취급했다.⁽²⁷⁾ 그러나 共產圈에서 실시된 삶의 질에 관한 舉論調查에서는 대체로 勞動領域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발표된 勞動生活 研究結果를 간략히 검토하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共產主義社會에서는 자기 능력만큼 일하여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勞動의 普遍性(universality of labor—the duty of all to work according to one's ability)을 生活原則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勞動領域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가장 결정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한 학자는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勞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국, 勞動의 질은 삶의 질에 있어서 특정하고 또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다. 勞動의 질에 입각하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하여 消費者로서 갖는 태도를, 生產的인 存在 또는 創造的인 存在로서의 人

(26) K. Mikulsky, "Two Systems—Two Ways of Life," *International Affairs* (April 1976), p. 31.

(27) Campbell, Converse and Rogers, *op. cit.*; Frank Andrews and Stephen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1976).

間의 자세와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²⁸⁾

그러면 共產主義의 사회생활에서 勞動이 실제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共產主義社會에서 살고 있는 인민들은 공산주의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勞動生活을 숭배하고 있는가? 소련에서 발표된 결과부터 검토해 보자. 1976년과 1977년 사이에 소련科學院의 N.M. Blinov는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지방에 살고 있는 5,000명의 주민을 상대로 「勞動의 社會的 機能」이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²⁹⁾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90%가 “일에 대한 사랑(love for work)”이라고 대답했다고 Blinov는 말하고 있다. “인간생활에 제일 큰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78%가 소련인들의 創造的이며 成功的인 労動活動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응답자의 대다수인 60%가 “흥미있고 동시에 타인에게 유용한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Blinov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Blinov는 소련인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높이 간직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소련인들의 응답이 Blinov가 해석하는 것처럼 社會主義原則을 受諾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執權者에 대한 順應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³⁰⁾

그러나 Blinov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소련인들은 우리들의 의아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지금부터 수년 후에 당신이 살아온 일생이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당신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소련인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圖表 1]이 표시하듯이, 勞動生活領域보다는 家族生活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즉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련인들은 재미있는 노동생활보다는 좋은 家族生活을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美國에서 실시한 삶의 질의 與論調查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도 소

(28) Chavdar Kiuranov, *op. cit.*, p. 173.

(29) N.M. Blinov, “The Socialist Way of Life and Problems of Work,” *op. cit.*, p. 45.

(30) *Ibid.*, p. 46.

련인들처럼 家族生活이 職業生活보다 중요하다고 하였고 職業生活을 물질적
인 풍요함보다 중요한 삶의 질의 결정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31)

〔圖表 1〕 소련인들이 평가한 생활영역의 중요도*

생활영역	전체 표본의 평균치	공장 노동자	농종사자	기술자	사무직원	과학자
좋은 가족생활	2.8	2.78	2.8	2.8	2.8	2.8
흥미로운 직업	2.7	2.7	2.6	2.7	2.6	2.8
물질적인 풍요	2.5	1.9	2.6	2.6	2.7	2.5
단조롭지 않고 의미있는 여가	2.2	2.3	2.2	2.3	2.4	1.9

* : 중요도는 1에서 3까지 표시하는 척도에 의해서 측량했고 1은 필요없음을 말하고
3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함.

자료출처 : N.M. Blinov, "The Socialist Way of Life and Problems of Work," in
I.V. Bestuzhev-Lada and N.M. Blinov, eds., *The Modern Conceptions
of Level of Life, Quality of Life and Way of Life* (Moscow: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78), p. 48.

共產主義理論이 강조하는 삶의 질의規範과現實간에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은 [圖表 2]에서 잘 증명되어 있다. "지금부터 5년 내지 10년 후에 당신
에게 완전히 적합한 직업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소련인 응답자
의 半數以下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收入면에서는 47%가, 職位면에
서는 46%가, 興味의 程度면에서는 45%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能力を 實現
시킬 수 있는 機會면에서는 단지 38%만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도 자신을 완
전히 만족시키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소련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勞動의 질(quality of labor) 및 삶의 질이理想的인 수준
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圖表 2〕 자신에게 완전히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련인들의 비율

직업의 성격	응답의 유형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무응답
사회적으로 인정받음	65.6%	5.4%	12.3%
수입	47.2	5.4	18.3
직위	45.8	4.8	21.6
흥미	44.6	4.1	22.9
능력 실현 기회	37.9	3.3	23.2

자료출처 : N.M. Blinov, "The Socialist Way of Life and Problems of Work," in
Bestuzhev-Lada and Blinov, *op. cit.*, p. 52.

(31) Campbell, Converse and Rogers, *op. cit.*, p. 85.

불가리아 中央統計局에서 1974년과 1975년에 6,519명을 상대로 실시한 與論調查에서도 共產主義理論이 제시하는 삶의 질적 理想과 그 국민들이 體驗하는 질적 水準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느냐”하는 질문에 6%만이 아주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³²⁾ 이 비율은, 하는 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대답한 미국인 36%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³³⁾ 또한 韓國에서 1979년에 실시한 與論調查에서 자기 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얘기한 11%의 半 정도에 불과하다. ⁽³⁴⁾

[圖表 3]은 불가리아 행정관리들이 추구하는 職業上의 理想과 그들이 經驗하고 있는 職業生活과의 差異點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35%가 새로운 것을 아주 많이 배울 기회를 원하는데 단지 9%만이 그들 희망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하고 싶어하는 28%의 半 정도인 15%

〔圖表 3〕 불가리아 행정관리들의 직업관

질 문	응						답 전체
	%	%	%	%	%	%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그 렇다 뿐이다	저 마다 운다	많 다	아주 많다	무응답	전체
1.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어느정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느냐?							
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0.8	7.7	33.5	48.8	9.0	0.4	100.2
② 새로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	0.8	7.7	28.7	47.8	14.5	0.6	100.1
③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5.5	17.2	35.6	31.9	7.8	1.9	99.9
④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0.6	2.5	25.6	52.8	17.8	0.7	100.0
2. 직장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얼마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느냐?							
① 새로운 것을 배움	0.0	1.0	5.5	57.6	35.4	0.6	100.1
② 자신의 생각을 적용함	0.6	1.0	9.4	59.9	27.7	1.5	100.1
③ 흥미로운 일을 함	1.5	4.2	11.9	51.8	28.1	2.5	100.0
④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이용함	0.4	1.3	8.4	54.1	34.6	1.2	100

자료출처 : Chavdar Kiuranov, "An Interesting Indicator of the Quality of Work and Quality of Life," in Alexander Szalai and Frank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80), p. 179.

(32) Chavdar Kiuranov, *op. cit.*, p. 177.

(33) Campbell, Converse and Rogers, *op. cit.*, p. 85.

(34) Hongkoo Lee, Kyung-Dong Kim and Doh C. Shin,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82).

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다.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많이 원하는 28%중에 8%만이, 그리고 자기능력과 기술을 아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35%의 관리중 18%만이 자기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헝가리에서 1977년과 1978년에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與論調查에서도 소련과 불가리아에서 발표된 결과와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圖表 4] 가 보여주듯이 헝가리에서도 家族生活이 公共生活보다 더 중요한 생활목표로 간주되고 있고 헝가리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열 가지 주요한 생활목표 중 직장생활이 제일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⁵⁾ 더구나 직업과 관련된 생활목표가 어느것 보다도 제일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직업목표의 30%만이 달성되고 있는 현실은 勞動生活을 통해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共產圈의 삶의 질의 개념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共產主義政權下에서 일생을 살아 온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도 結婚과 家族生活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共產主義理論에서 誘導된 삶의 질의 規範이 인간생활 現實에 얼마나 적합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³⁶⁾

〔圖表 4〕 헝가리인들의 생활목표

생활 목표	성 공	실 패	생활 목표	성 공	실 패
가 족 생 활	72	28	여가, 취미	60	40
인 간 관 계	70	30	정신적 및 도덕적 발전	50	50
공 공 생 활	67	33	예술적 및 과학적 성취	34	66
사회적 지위 향상	65	35	교 육	34	66
생 활 수 준	63	37	직 업	30	70

자료출처 : Elmer Hankiss, "Structural Variables in Cross-National Research on Quality of Life," in Alexander Szalai and Frank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80), p. 179.

V. 結 論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현대 모든 國家의 염원이며 가장 중요한 과

(35) Elemér Hankiss, "Structural Variable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op. cit.*, p. 54.

(36) Wladyslaw W. Adamski, *op. cit.*, pp. 256-257.

제로 간주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서도 좀더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發展計劃을 수립해서 國民生活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삶의 질을 연구하고 있다. 共產圈에서는 國民이 追求하고 希望하는 生活속에서보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理論속에서 삶의 질을 찾고 있다. 個人生活과 共同生活, 그리고 삶의 環境과 삶의 經驗 등을 삶의 질의 構成要素로 간주함으로써 共產圈의 삶의 관념은 多元的이며 動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여러 構成要素간의 相關關係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體系的인 研究를 인도할 수 있는 概念이 아니라 哲學的인 規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소련, 불가리아, 평가리, 그리고 폴란드에서 실시된 經驗的인 研究結果는 哲學的인 規範으로서의 妥當性까지 의심하게 한다. 共產主義社會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共同生活領域보다도 個人生活領域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共產主義理論에 입각한 超越的인 삶의 질의 概念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生活滿足感하고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그리고 삶의 질은 分配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은 西歐學者들의 지나치게 단순한 삶의 개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